

**2022 년 3 월 13 일 “그리스도의 길(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눅 10:25-28)**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며 따르는데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확증해주신 사랑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 사랑**

예수님은 한 율법교사와의 대화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 말씀을 영생의 길이라고 하십니다(28 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존중하며 그분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고, 더하여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주님과 인간이 만나는 세상과 삶에 관해서도 말해줍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일을 사람과 함께 행하시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종속적이거나 기계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할 것인지 진지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사랑고백을 받으면 그를 사랑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것은(27 절), 사랑을 선택하고 정진할 때 겪는 씨름의 과정 속에서 필요합니다.

**[2] 이웃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창 1:28). 공동체적 삶을 염두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는 협력할 줄 아는 정신과 자세입니다(하나됨). 협력은 인간이 피조계에서 잘 살아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 받은 피조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 이웃 사랑은 중차대한 인간 소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유는 주로 내면적인 성품 결여에 있습니다. 마음이 그늘지고 혼탁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탓도 하고 자신을 싫어하게도 되죠. 이것의 원인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 때 위로 받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참고: 롬 13:9, 갈 5:14, 엡 5:28, 약 2:8)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도 사랑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피상적이고 이기적 의미를 떠나 어떻게 자신을 성경적으로 사랑할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힘이 되어 내가 나를 진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 사랑에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계기나 과정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2. '제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제 몸과 같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